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 (서면질문)

【교통행정과장 : 최철호 / 교통시설팀장 : 정준택 / 주무관 : 행정9급 김은지】

연락처(☎) : 2600-4162

### 정재봉의원 구정질문 내용

- (연번 1) 불법주정차 전동 키포드 관리 대책 마련 필요
  - 강서구는 전동 키포드 주차장이 타구에 비해 많이 설치되어 잘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키포드가 차도나 인도에 무분별하게 방치되고 있음.
  - 강서경찰서 확인 결과 2022년도 키포드 관련 사고가 다수 있으며, 타 기관 자료에서는 해마다 사고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키포드 운전자, 보행자 안전과 도시미관 저해 등 각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 차원에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 □답변내용 ----- (교통행정과)

- 우리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재봉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우리 구 불법주정차 전동 키포드 관리 대책 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 구는 전동키포드 불법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 마곡역 주변을 포함하여 22개소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더하여, 금년에는 등촌역 등 역사 주변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 또한, 상·하반기 각각 안전교육을 2회씩 실시하고 안전수칙 홍보영상과 책자를 배부하여 홍보할 계획이며, PM 주차구역에는 올바른 주차 및 사용법이 표시된 안내판을 부착하여 이용자들에게 계도할 예정입니다.

- 또한, 평일에는 7명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서포터즈가 운영되어,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안전지대로 이동 조치하여 안전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 제도적 대책으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를 견인하고 견인료를 부과하는 시스템을 운영하여 무단방치 신고 건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앞으로도 시설관리공단 및 전동킥보드 업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질서있는 전동킥보드 문화를 조성하고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서

## (서면질문)

【교통행정과장 : 최철호 / 교통시설팀장 : 정준택 / 주무관 : 임기제 7급 유동렬】

연락처(☎) : 2600-4137

### 정재봉 의원 구정질문 내용

- (연번 2) 교통체증 민원 현황과 개선방안 촉구
  - 개화사거리, 외발산사거리, 마곡중앙로 합류구간 등은 교통체증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구간으로써 시간에 따라 변화폭이 큰 교통량에 대한 적절한 기술적 해결책 필요
  - 서울시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교통신호제어용 차량검지기 설치”예산이 증액되어 좌회전 등 영상감지 감응신호기 시범설치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므로 강서구가 시범설치 시범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관내 강서구 차원에서도 감지기 설치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교통체증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전략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

### □ 답변내용 ----- (교통행정과)

- 우리 구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정재봉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교통신호기 시설을 관리하는 서울시에서 추진 예정인 교통신호 제어용 차량검지기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 적용 가능한 대상지를 발굴하여 서울시의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수요 및 대상지 선정 조사 시 우리 구가 시범사업 대상지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서울시에 적극 건의 하겠습니다.
- 개화사거리, 외발산사거리, 마곡중앙로 합류 구간 등 교통정체가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의 ‘도로교통 소통개선 사업’을

통해 정체 해소 및 사고 위험 개선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2년에는 강서구청 사거리를 대상으로 사고 위험 요소를 검토하여 안전시설(보도 확장, 과속방지턱 신설 등)을 강화하였으며, '23년에는 개화동로 구간 상사마을 입구(우회전차로 증설)와 등촌로(등촌역 교차로 차로 조정 등)에 대해 소통개선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 이와 같이 교통정체 및 혼잡 발생 장소에 대해 개선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교통신호체계(신호 운영 등) 개선을 통해 정체 해소가 가능한 장소에 대해서는 차량검지기 설치 등 관계기관인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쾌적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